

〈서 평〉

German Neo-Liberals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Alan Peacock and Hans Willgerodt編, St. Martin's Press (1989)

朴 世 逸*

오늘날全世界的으로 하나의 巨대한 변화와 變革의 물결이 進行中에 있다. 그 하나의 나타남이 社會主義圈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혹은 開放化로 나타나고 있고, 本質的으로 同一한 性格의 변화가 資本主義圈에서는 脫規制化(Deregulation), 民營化(Privatization), 分權化(Decentralization)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全世界的의 規模로 進行되고 있는 이 巨대한 변화와 變革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어떻게 定義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新自由主義(Neo-Liberalism) 내지는 秩序自由主義(Ordo-Liberalism)라고 定義할 수 있다.

近世初이후의 人類의 歷史를 思想史的으로 정리해 보면 重商主義(Mercantilism)→自由主義(Classical Liberalism)→新重商主義(Neo-Mercantilism)→新自由主義(Neo-Liberalism)로의 辨證法的 發展의 歷史로 이해할 수 있다. 中世末 近世初 絶對王政과 결합했던 重商主義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經濟的 自由主義, 존 로크(John Locke)의 政治的 自由主義로 대표되는 古典的 自由主義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 후 18世紀와 19世紀는 주로 自由主義가 支配하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이 古典的 自由主義 특히 放任的 自由主義가 人類의 물질적 豊요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반면에 貧富隔差, 勞動疎外, 獨寡占 등의 資本主義 特有的 많은 사회·경제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矛盾과 問題점을 克服하기 위해 인류는 두가지 對案을 고안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社會主義로의 길이고, 다른 하나가 修正資本主義로의 길이다. 1917년 혁명을 계기로 소련은 社會主義로의 길을 걷게 되고, 1930年代 世界공황을 계기로 美國은 본격적인 修正資本主義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두가지 對案은 그 내용상 여러가지 많은 相異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뚜렷한 共通點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經濟的 自由主義에 대한 不信, 환언하면 經濟에 대한 國家介入과 國家計劃의 증대였다. 經濟的 自由主義에 대한 철저한 否定과 國家計劃에 의한 民間經濟의 完全代替가 社會主義이고, 經濟的 自由主義에 대한 部分的 不信과 國家介入에 의한 民間經濟의 部分的 代替가 修正資本主義였다. 물론 前者에는 칼 마르크(K. Marx)와 레닌(Lenin)의 공헌이 컸고, 後者에는 케인즈(Keynes)의 이론적 기여가 컸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教授

自由經濟에 대한 國家의 家父長的 指導와 介入의 增大(State Paternalism)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주장은 思想史的으로는 重商主義의 부활, 즉 新重商主義라고 부를 수 있다. 혹은 個人主義에 대한 集團主義(Collectivism)의 승리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新重商主義 내지는 集團主義의 두가지 다른 형태인 社會主義와 修正資本主義는 각각 자기나름의 發展의 길을 걸어 왔으나, 社會主義는 1950~60년대부터, 修正資本主義는 1960~70년대부터 각각의 體制에 새로운 問題點과 矛盾點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문제점은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거대해지는 官僚獨裁 내지 官僚主義의 非效率과 不公正, 그리고 民間活力과 民間創意의 위축이었다.

社會主義에서는 競爭의 非人間性과 市場의 無政府性을 극복해 보겠다고 官僚에 의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도입하였고, 修正資本主義에서는 市場에서의 私的 獨占의 弊害, 貧富隔差의 擴大를 막겠다고, 官僚에 의한 公的 獨占(公共部門)의 확대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어느 쪽이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官僚主義에 의한 새로운 非效率과 不公正의 發生, 民間創意와 民間活力的 弱화, 成長潛在力의 위축, 새로운 既得權세력의 형성등을 결과 하게 되었다. 이러한 新重商主義내지 集團主義의 폐해를 克服하려는 努力이 바로 오늘날 新自由主義이고 이 新自由主義의 社會主義版이 케레스트로이카이고 資本主義版이 脫規制化·民營化인 것이다.

이러한 新自由主義運動은 大別하여 發生史的으로 3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칼 멩거(K. Menger), 미세스(Mises), 하이에크(F. Hayek) 등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는 오스트리아學派, 둘째는 오이겐(W. Eucken), 뢰프케(W. Röpke), 프란츠 뵘(Franz Böhm) 등 獨逸經濟學者와 法學者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秩序學派(Ordo-Kreis), 셋째는 후랑크 나이트(F. Knight), 프리드만(M. Friedman) 등에 의해 대표되는 美國의 시카고學派가 그것이다. 이 세 學派간에는 具體的·個別的 문제에 들어 가면 미묘한 見解差異도 있으나, 이 세 學派는 적어도 國家介入主義的 發想에 반대하고, 社會·經濟政策의 基本理論을 個體의 原理와 自由의 原理에 기초하여 세우려 하는 점에서는 同一한 立場을 취하고 있다. 이 상과 같은 3가지 新自由主義의 흐름중 獨逸의 秩序學派의 理論을 體系의으로 整理하고, 그 理論에 대한 內部論爭과 外部評價를 紹介한 책이 바로 German Neo-Liberals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이다.

이 冊은 獨逸과 英國 두나라 學者들의 共同研究의 結果인 데, 그 登場背景이 흥미롭다. 即 英國經濟가 1970年代末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一群의 英國學者들이 英國의 經濟的 亂局을 타개하는 方案을 理論的으로 모색하는 과정속에서, 戰後 獨逸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한 獨逸秩序學派의 社會的 市場經濟論(Soziale Marktwirtschaft)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獨逸學者들을 초청, 1977년 런던에서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共同研究에 들어 간다. 그리고 그 研究結果가 거의 10년이 지나 두 卷의 冊으로 나오는 데, 한편이 바로

이 글에서 紹介하려는 German Neo-Liberals and the Market Economy (1989)이고, 다른 한 권이 같은 編者 같은 出版社에서 나온 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Origins and Evolution(1989)이다. 後者는 獨逸의 秩序學派가 주장하는 社會的 市場經濟論의 내용을 秩序學派의 創始者들인 오이켄(W. Eucken), 뵘(F. Böhm), 뢰프케(W. Röpke), 뮐러-아마크(A. Müller-Armak), 루쯔(F.A. Lutz) 등이 發表했던 既論文들을 英語로 直譯하여 紹介하는 冊으로서, 특히 英語文化圈에서 獨逸의 秩序學派의 理論을 연구하는 데 重要的 資料集의 性格을 갖는다. 反面에 前者, 即 German Neo-Liberals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는 現在 활약하고 있는 學者들에 의한 獨逸의 秩序學派(秩序自由主義者라고도 부른다)의 理論에 대한 體系的 紹介와 批判的 評價를 모은 冊이다. 두권의 책 모두가 同一한 編者에 의해서 나왔는데, 編者中 1人인 Alan Peacock卿은 현재 대비드 흄연구소(David Hume Institute)의 執行理事이며, 大學教授이고 學術院會員이며 英國정부의 經濟政策 諮問教授이다. 다른 한사람의 編者인 Hans Willgerodt교수는 秩序學派가 출판해 오고 있는 論文集인 秩序年報(Ordo Yearbook)의 共同편집장을 맡고 있는 學者로서, 世界的으로 유명한 自由主義者 모임, Mont Pelerin Society의 一員이며 獨逸의 各種經濟改革을 권고하고 있는 法學者와 經濟學者의 모임인 Kronberger Kreis의 會員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German Neo-Liberal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는 총 10編의 論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1章은 앞에서 소개한 두명의 編者에 의한 獨逸自由主義運動에 대한 概略的 紹介論文이고, 第2章에서는 Mainz大 명예교수인 레넬(H. Otto Lenel)교수가 社會的 市場經濟理論의 發展 및 進化과정을 整理하고 있다. 第3章은 英國言論人인 존슨(D. Johnson)씨가 初期 秩序自由主義者인 뢰프케(W. Röpke), 뢰스토우(A. Röstow), 오이켄(W. Eucken) 등의 研究活動과 國內外에서의 各種 著術活動등을 그 時代的 背景과 연계시켜 整理·紹介하고 있다. 第4章에서는 독일의 Tübingen 大學의 클로텐(Norbert Kloten) 教授가 社會的 市場經濟論에서의 公共部門의 役割을 分析하고 있고, 第5章에서는 英國의 Buckingham 大學의 배리(Norman Barry) 教授가 獨逸의 新自由主義者들의 政治·經濟理論을 分析하고 있다. 第6章에서는 텀러(J. Tumlrir) 教授에 의해 獨逸秩序學派의 창시자의 한사람인 法學者 프란츠 뵘(Franz Böhm)의 法·經濟理論이 紹介·評價되고 있다. 第7章에는 Tübingen 大學의 뢰셸(W. Möschel) 教授가 秩序學派立場에서 본 競爭政策(Competition Policy)을 分析하고 있고, 第8章에서는 英國의 York大學의 와이즈먼(J. Wiseman) 教授에 의해 社會的 市場經濟에서의 社會政策(Social Policy)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第9章은 스위스 Geneva의 커즌(G. Curzon) 教授에 의해 秩序自由主義者들이 주장하는 國際經濟秩序(International Economic Order)論의 내용이 紹介되고 批判되고 있다. 끝으로 第10章에서는 스위스의 Basel 大學의 베른홀츠(P. Bern Holtz) 教授에 의해 秩序自由主義者들의 '通貨政策理論'이 분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英國·獨逸·스위스의 學者들에

이해 獨逸 秩序自由主義者들의 社會的 市場經濟理論을 여러 측면에서 體系的으로 分析·批判·評價하고 있는 것이 이 冊의 주요 特徵이다.

그러면 끝으로 古典的 自由主義와 소위 新自由主義,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秩序自由主義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言及하도록 한다. 古典的 自由主義는 기본적으로 「自由에서 秩序가 나온다」고 보았다. 自由만 주워지면, 그 속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自生的이고 自律的인 秩序가 形成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秩序自由主義者는 秩序가 前提될 때에만 自由는 그 참 價値가 實現될 수 있지, 秩序가 前提되지 않는 放任的 自由는 얼마든지 反社會的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환원하면 自由의 원리, 自由의 價値는 秩序속에서 가장 잘 發現됨으로, 결국 「秩序에서 自由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떤 秩序가 前提될 때, 自由는 自己價値를 發現할 수 있을까? 첫째로 公正競爭秩序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反獨占과 反經濟力集中의 秩序이어야 한다. 私的獨占과 經濟力集中이 존재하는 市場秩序속에서의 自由는 「힘있는 자」의 經濟的 착취와 抑壓의 自由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잘못된 秩序下에서 自由市場은 效率과 公正의 執行者가 아니라, 非效率과 不公正의 代名詞가 된다. 따라서 經濟的 自由主義가 自己價値를 實現하기 위해선 反獨占과 反集中의 公正競爭秩序가 반드시 前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위 競爭政策(Competition Policy)이 크게 強化되어야 한다.

둘째로 弱者保護秩序를 들 수 있다. 특히 市場에서의 競爭에 참가할 수 없는 病弱者, 老弱者 등에 대한 特別配慮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配慮가 없으면 어떠한 秩序도 社會的 納得性(公正性)을 얻을 수 없다. 다만 社會的 弱者에 대한 보호는 항상 弱者의 自救努力·自助能力을 살리는 方向으로의 保護가 되어야 하고, 弱者保護가 弱者를 더욱 弱하게 하는 逆機能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세째로 들 수 있는 것은 豫測可能秩序이어야 한다. 未來에 대하여 個人들이 安心하고 計劃을 세우고 經濟行爲를 할 수 있는 豫測可能秩序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政府政策이 便宜(Expediency)에 기초한 政策이 되어서는 안 되고, 原則(Principle)과 原理에 기초한 政策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法の支配(Rule of law) 下의 政府政策이어야 한다. 그러할 때 形成되는 秩序는 私益實現的이 아니고 價値實現的이 되며, 동시에 一貫성과 安定성을 가진 豫測可能秩序가 될 수 있다.

이와같이 公正競爭·弱者保護·豫測可能的 秩序가 前提될 때, 비로소 自由主義는 個體의 發展과 共同體의 發展을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는 秩序自由主義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新自由主義내지 秩序自由主義思想의 등장에 獨逸의 秩序學派(Ordo-Kreis)의 공헌은 多大하였으며, 그 貢獻의 內容을 우리는 German Neo-Liberals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에서 概觀할 수 있다고 본다.